

“ 인생의 무거운 짐 ”

■ 이종윤 원로목사

스페인의 격언 중에 ‘예나 지금이나 조용한 집이 없다’는 말이 있다. 인간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크고 작은 짐이 있다. 어떤 짐은 눈에 보이나 정말 무겁고 어려운 짐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기 홀로 져야 할 짐이 있다.

남이 대신 저출 수 없는 짐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대신 할 수 없다. 우리는 각각 다른 개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죽음의 고개를 홀로 가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 있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자기에 대한 책임을 자신만이 져야 한다.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심판대 앞에서도 내가 대답해야 한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도 내가 해야 한다. 군중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거나 숨을 수도 없다. 좋은 교회 성도라고 단체적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청교도 신학자 요나단 에드워드의 일기장에 “결단하자 그 대가가 비쌀지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다른 이들이 비록 잘못된 길로 모두 가버렸다 해도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나로 옳은 길로만 가게 하소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악함을 자인하고 피조물 됨과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하는 책임적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

서로 저야할 짐이 있다.

이것은 공동체가 지고 있는 짐을 말한다. 사회적, 국가적, 민족적 그리고 교회의 짐을 다른 이들과 함께 져야 한다. 형제나 이웃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과 저주를 하지 말고, 그가 회개하고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온유한 심정으로 그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짐을 서로 지는 방법이다. 우리가 남에게 충고할 때 저주나 심판의 자세가 아니라 어머니같은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민중사회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길은 자신이 먼저 바른길을 가는 것이다. 한 사람의 모범이 천 마디 논쟁보다 낫다.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은 크리스스툼 목사를 ‘황금입술을 가진 이’라 불렀다. 크리스스툼 목사 한 사람이 바로 살고, 바른 길을 가르침으로 세상이 바로 가게 되고, 근심도 염려도 사라지게 되니 사람들은 태양빛이 비치지 않을지언정 크리스스툼 목사의 설교가 그치지 않기를 원했다.

약하고 흠이 많고, 더러운 인생을 분석 검토한 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그들의 허점을 아시면서 그대로 부르셨고, 믿어주며 격려하셨다. 3번씩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 내 양을 치라는 큰 사명을 주신 것도 베드로의 회개한 양심을 믿어주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 희생의 법, 자신을 포기하는 겸손의 법이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한다. 남에게 회망을 주고, 격려의 말을 하려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짐이 있다.

의무를 거부했을 때 우리는 양심의 짐, 또는 우리를 짓누르는 죄의 짐을 내 힘으로는 질 수 없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같은 짐을 내게서 가져다가 대신 쳐주신다. 모세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은 홀해 앞에서 옮겨 주셨다. 사방으로부터 옥여쌈을 당한 사도 바울의 짐도 하나님은 제거시키시는 대신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은혜로 힘을 주셨다. 우리는 무겁고 힘든 짐을 홀로 지려하거나 누구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자신을 보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며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든지 그 짐을 넉넉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대신 쳐 주실 것을 믿고, 그에게 맡기고 나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죄의 짐, 질병, 절망, 불신앙의 짐, 공포, 후회의 짐을 전능자, 전지자, 사랑 많으신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으라.

-한국장로신문 [제 1389호] 2013년 11월 16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enior Deaconess Seung Kyung Baeck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6:18-20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Anthem Congregation
Sermon “Flee and Honor” Rev. Euichang Kim
* Hymn 488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전광혜(사이사이), 이은준(김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물(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아사, 비스타파: 사지, 에복(인도), 정상진(홍성일(필리핀),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미디가스 카르),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항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피(노동자), 필리핀, 프르산토, 수레시, 수반석, 이경업, 알로롱, 비누부뽀도, 보다소프,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박영성(총회), 강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걸(근교)	

천국시던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최악의 우상숭배 ”

■ **겔 28:2-10**
 현대의 철학은 이미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 신을 추방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간답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볼테르는 이신론을 주장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이신론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이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추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종교 상태가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없는 종교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추방되면 그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인간이 앉게 됩니다. 인간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인간이 스스로를 찬양하고, 절대화 하는 새로운 종류의 종교가 시작될 것입니다.

1. 나는 신이라
 에스겔 28:2에 두로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신뢰합니다. 이것은 현대 인간이 과학과 축적된 지식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두로 왕은 그런 지혜와 총명으로 문명을 이루고,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이루었습니다(4-5절). 지금 이 시대도 과학 기술에 기반하여 첨단 산업을 일구고 과거에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개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자기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며, 이것으로 주식 투자부터 엔터테인먼트까지 무엇이든 다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두로 왕은 아담이고, 아담은 두로 왕이다
 본문 13절은 두로 왕과 아담을 교차로 언급하면서, 두로 왕의 모습과 아담의 모습을 겹쳐보이게 하는데 이것은 두로 왕의 죄가 곧 아담의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아담을 기름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비유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아담을 제사장으로, 에덴동산을 성전으로 보았습니다. 아담은 원래 제사장으로서 에덴동산을 지키는 임무를 갖고 있었고, 악의 세력이 에덴동산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5절). 여기서 ‘너’ 는 두로왕이 아니라 분명 아담을 의미합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 은 아담 창조시 날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원래 모든 길에서 완전했으나 그에게서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그 불의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두로 왕과 아담은 서로 일치합니다.

3. 아담과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신적 지위를 탐하고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두로 왕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두로 왕과 아담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2절).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죄이고 잘못이지만, 인간의 자기 숭배는 더 심각한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인간은 자신이 재판관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자신은 절대적으로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독사의 새끼’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인간들을 혐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보십니다.

맺는 말
 오늘 날 현대인이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은 정의의 사도로 보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자기 의입니다. 피조물 중에 절대적으로 선한 사람도 없고, 절대적으로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기 의로 포장하고, 상대 방을 절대 악으로 규정해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최악의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과 동일한 죄 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악의 우상숭배인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김철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하인선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오광환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인 도 자

오후 5시 인도, 설교: 장석남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출 15:1-2 인 도 자
 찬 송 309(409) 다 합 께
 기 도 김영희 집사
 성 경 막 6:1-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만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대라” ... 설 교 자
 * 찬 송 135(133)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함정희 권사
 성 경... 빌 2:1-1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그리스도의 겸손” ... 설 교 자

홍해작전 특별새벽기도회

6월24일(월) - 25일(화)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조원영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해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박준호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나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겔 28:2)	지난주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 모임

- 스데반 6월 월례회 / 23일(주) 3부 예배 후 101호(웨스트민스터홀)
- 2019년 홍해작전 참모회의 / 23일(주) 3부 예배 후 후문 야외(한티공원쪽)
- 학부모 기도회 / 29일(토) 새벽기도 후 102호

◆ 알 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일에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공민호(신경외과), 이종욱(진검)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이경진(성형외과) 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p> <p>14.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철홍 목사님(장신대 신약신학 교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p> <p>15. 2019 홍해작전에 온 성도님들(주일학교 학생 포함)은 힘써 참여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앞에 갈라진 홍해를 기쁨과 감사로 건너는 체험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p> <p>◆ 장 레 1. 故 김순화 사모(이성일 선교사의 모친 서광중 선교사의 장모) / 18일(화) 별세, 21일(금) 천국환송예배</p>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865명	238명	194명	1,297명	140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6/16)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6월 16일	헌 금	27,609,700	
	찬양운영비		100,000
	교회학교운영비		2,703,550
	선 교 비	300,000	
	행 사 비	6,946,000	
	구 제 비	300,000	
	지원교회	500,000	
	출 판 비	250,000	
	연합사업비	1,000,000	
	복리후생비	90,900	
	차량유지비	2,417,959	
	통 신 비	1,005,460	
	환경유지비	80,100	
	수선유지비	195,000	
	식당운영비	841,150	
	합 계	27,609,700	16,730,119